

# 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의 10대 공약 및 보건의료 공약

이상아<sup>1,2</sup> · 박은철<sup>2,3</sup><sup>1</sup>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sup>2</sup>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sup>3</sup>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10 Main Pledge of 19th Presidential Election

Sang Ah Lee<sup>1,2</sup>, Eun-Cheol Park<sup>2,3</sup><sup>1</sup>Department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sup>2</sup>Institute of Health Services Research, Yonsei University; <sup>3</sup>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On May 9th 2017,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was held. This election was historically significant because of the impeachment of the former president. This election was held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unlike the normal presidential elections. Therefore, there was not enough time to deliberate pledges for candidates and review pledges for the people. South Korea has suffered from many healthcare problems associated with low-birth rate, population aging, and low economic growth rate. In this paper, we compared the '10 main pledge' of the major five candidates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and discussed focusing on the healthcare issue.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10 main pledge of the major candidates, it was difficult to find healthcare parts whereas there were lots of welfare parts existed. We need enough time to review and discuss pledges in the next election.

**Keywords:**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Healthcare; Aging society

### 서 론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으며, 문재인 후보가 41.1%의 투표율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의 탄핵으로 진행된 최초의 '장미 대선'에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고, 역대 최다 수의 후보가 출마하는 등 19대 대선은 여러 이력들을 남겼다. 그러나 18대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일인 2017년 3월 10일 이후 두 달여 만인 2017년 5월 9일에 치러졌기 때문에 기존의 대선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대선이 진행되어 시간적으로 촉박하였다. 예비후보자 등록의 경우 18대 대선은 216일간 진행된 반면, 19대 대선은 36일 만에 진행되었으며, 선거기간이 23일로 동일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일정이 18대 대선보다 짧았다[1]. 이처럼 5월 대선이 확정된 이후에도 기간이 짧았기에 후보자들의 준비기간이나 과정이 부족했을 수 있으며, 유권자들의 경우도 각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자세히 고찰해 볼 시간이 부족하였다. 또한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익일부터 바로 취임하여 새 정

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선거 공약이 그대로 정책과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선거의 공약은 매우 중요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낮은 출산율, 인력 부족,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 두 번째로 긴 근로시간 등 다양한 보건의료문제에 직면해있고[2,3], 따라서 대선 후보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였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주요 대선주자 5인(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의 10대 공약에 대해 살펴보고, 이 중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 10대 공약 중 보건의료 관련 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선거공보 및 10대 공약'의 내용을 자료원으로 사용하였다[4]. 10대 공약 중 보건의료 관련 부분에서는 노인과 관련된 공약들이 많았으며,

**Correspondence to:** Eun-Cheol Park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50-1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Tel: +82-2-2228-1862, Fax: +82-2-392-8133, E-mail: [ecpark@yuhs.ac](mailto:ecpark@yuhs.ac)

Received: June 12, 2017 / Revised: June 15, 2017 / Accepted after revision: June 15, 2017

©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저출산 및 보육 관련 공약, 국민연금 관련 공약 등 복지분야 공약이 공약의 주(主)를 이루었다(Appendices 1, 2).

### 1. 노인 관련 공약

주요 5인의 후보가 공통적으로 노인 관련 문제를 중요시하였으며, 노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의 기초연금 강화, 노인 일자리 확충, 수당 인상, 연금 보완 등의 공약을 제시하였다. 또한 치매 의료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등급기준 완화 등 치매와 관련된 공약들도 대다수의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독거 노인과 관련해서도 독거 노인 방문 프로그램, 자원봉사 활성화, ‘독거 노인 공동생활홈’ 등의 공약을 보였다.

### 2. 저출산 및 보육 관련 공약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출산휴가기간 연장 및 난임치료비, 출산 관련 비용 국가지원 확대의 공약이 있었으며, 보육과 관련해서는 가정양육수당 인상,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방과 후 돌봄교실, 아동수당 등의 공약이 제시되었다.

### 3. 국민연금 관련 공약

대다수의 후보들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최저 연금액 보장 및 단계적 인상,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국민연금 관련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 4. 기타 공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준 완화 혹은 혜택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 확대 및 권리보장법 제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완화 및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의료취약지 해소 및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등 보건복지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다.

## 고 찰

19대 대선의 주요 5명의 후보의 10대 공약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의 후보가 일자리 관련 공약과 안보 관련 공약, 그리고 정경유착, 재벌개혁 등을 우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 합계출산율이 1.3을 넘지 않는 초저출산국[3], 인구 감소로 인해 생산과 소비가 침체하는 인구 오너스 현상(demographic onus) 등이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5]. 또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로 인한 갈등과 최근에 불거진 국정농단 등의 문제 등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들을 우선 공약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공약의 경우 모든 후보가 공통적으로 ‘노

인 복지’와 관련된 공약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3]. 이로 인한 여러 사회문제들이 유발되고 있는데, 그 중 한가지가 ‘노인 빈곤’의 문제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0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두 배 수준을 보이고 네덜란드와는 40배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심각한 문제이다[6].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확충, 수당 인상,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의 노인 관련 공약이 보건 관련 공약의 주(主)를 이루었다. 이 외에도 치매와 관련된 공약들도 주로 보였는데, 2012년 우리나라의 치매환자는 7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24년에는 1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저출산, 보육, 국민연금 등 각 후보들에게서 공통적인 공약들이 존재하였다.

10대 공약을 살펴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문제에 비추어 필요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미약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의 우선순위 과제는 OECD 국가 1위의 자살률, 외래방문횟수, 재원일수 등과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등이 있지만[7], 10대 공약에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였으며, 10대 공약의 보건복지 부분이 보건의료 분야보다는 복지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19대 대선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발생한 탄핵으로 인해 짧은 기간 내에 진행이 되었기에 후보자들이 공약과 정책을 고민하고 이에 대해 준비할 시간도 촉박하였다. 다음 20대 대선 때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제시할 공약에 대한 검증 및 고찰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공약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1. Kim WK. How different the schedule of 18th and 19th presidential election? [Internet]. KBS News 2017 Mar 16 [cited 2017 Jun 8]. Available from: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46329&ref=A>.
2. Park EC, Jang SI. The diagnosis of healthcare policy problems in Korea. J Korean Med Assoc 2012;55(10):932-939. DOI: <https://doi.org/10.5124/jkma.2012.55.10.932>.
3. Statistics Korea. Korean statistics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2017 [cited 2017 Jun 8].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
4.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10 Main pledge of 19th presidential election [Internet]. Seoul: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2017 [cited 2017 Jun 6]. Available from: <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Content119.do>.
5. Kye B. An alternative index of population aging: accounting for education and elderly health in the case of Korea. Dev Soc 2016;45(3):563.
6.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Old-age income poverty” in pension at a glance 2013: OECD and G20 indicators.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2013.
7. Lee SA, Park EC. Position value for relative comparison of healthcare status of Korea in 2014. Health Policy Manag 2017;27(1):88-94.

**Appendix 1.** The 10 main pledges of five major candidates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문재인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안철수 (기호 3번, 국민의당)	유승민 (기호 4번, 바른정당)	심상정 (기호 5번, 정의당)
1 일자리 확대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튼튼한 자강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국민주권형 정치 개혁
2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교육·과학기술·창업혁명	일하면서 대접받는 나라	튼튼한 안보, 적극적 평화외교
3 반부패·재벌 개혁	서민 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경 유착 및 불공정 거래 근절	<b>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 실현</b>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4 강한 안보로 튼튼한 대한민국	교육 희망 사다리 구축	임금 격차와 고용 불안 없는 미래 일자리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	고용 안정 및 차별 없는 사회 실현
5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서민 복지 확대로 사회안전망 조성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혁신 중소기업, 튼튼한 자영업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성평등 사회 실현
6 성 평등한 대한민국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b>격차 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b>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 불안 해결	농어민·중소상공인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
7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	부패 척결 및 공공부분 개혁을 통한 사회 부조리 차단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	최강군 육성	<b>보육, 의료, 노후 안심 복지 실현</b>
8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육아 국가책임제	청정 대한민국	성평등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미래 교육 구현	사람 중심의 교육 혁명과 과학 기술·정보통신
9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농산어촌 지원	4차 산업혁명 선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소형 주택 공급 확대, 저소득층 주거 복지 강화	탈핵 생태 사회, 공정한 언론과 문화국가
10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나라	저출산 극복과 청년복지 확대로 대한민국에 활기를	스마트 농어촌	권력기관 부정부패 청산 및 헌법 정신 실현하는 정치 혁명	아동, 청년, 장애인, 소수자에게 희망을

Appendix 2. Healthcare pledge among the 10 main pledges of five major candidates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문재인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안철수 (기호 3번, 국민의당)	유승민 (기호 4번, 바른정당)	심상정 (기호 5번, 정의당)
보건의료 공약 수	1개	2개	1개	1개	1개
보건의료 공약 순위	7위	3위, 5위	6위	3위	7위
공약 제목	- 어른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서민복지 확대로 사회안전망 조성	- 격차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 실현	- 보육, 의료, 노후 안심복지 실현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어른신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과 소득 격차 해소,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 -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특별 대책 마련을 통해 제기 발판 마련 - 저소득층 어른신들을 위한 복지 강화	- 격차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 - 맘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국가 - 가난의 고통이 없는 국가 -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국가 - 돌봄이 고통이 아닌 보람이 되는 국가	- 기초생활 보호 등 빈곤대책 재설계 - 어른신들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도움	-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
이행방법	-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노인일자리 2배 확충 및 수당 2배 인상 -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노인 건강증진사업 확대	- 영유아, 초중고생, 청년, 취업 이후-중장년, 50-60 은퇴자,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나누어 서민 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 -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 구난위원회' 신설 - 홀로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치매 예방부터 치료까지 one-stop 서비스 지원 - 어르신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구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저출산 극복 - 가족, 기업, 국가가 함께 키우는 행복한 어린이 - 어르신 '빈곤제로'와 '건강 100세 시대' -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 - 건강권 보장 - 씩 있는 가족돌봄사회 토대 마련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정액제(외래본인부담제도) 정액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 국민연금 최저 연금액 보장 및 단계적 인상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소득 하위 50%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차등적 인상	- 보육: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로 안심보육 실현 - 의료: 선진국 수준의 건강국가 실현 - 노후: 누구나 존엄한 노후 보장 - 기본복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